

배신과 복수... 유쾌·상쾌·통쾌한 훈련장



연습 나선 양현종 글러브 실종사건
유력 용의자 임기영·이민우 추궁
후배들 시치미 떼며 오리발

포수 이동진이 라커룸서 발견
양, 운동장서 피칭 훈련 재개

며칠뒤 구장 나무에 유니폼 컬렉션
임기영·이민우 운동복 전시회
선수들 훈련 나서며 큰 웃음

양현종, 독립리그 연합팀 선발 출전
미국 스카우트들 앞에서 쾌투



이민우와 임기영의 유니폼이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서 테리 스포츠파크 근처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 <KIA 임기영 제공>

KIA 타이거즈의 '유쾌한 캠프'는 내용도 알차다.

며칠 전 KIA 캠프에는 큰 웃음이 터졌다. 훈련을 위해 경기장으로 출근한 선수들은 주차장 나뭇가지에 나무에 유니폼들을 목격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라커룸으로 향하는 펜스에 언더셔츠와 바지까지 나란히 걸려있었다. 11번과 17번, 투수 이민우와 임기영의 유니폼이었다.

사연은 이랬다. 지난 2월 23일 훈련을 위해 스트레칭 등을 끝낸 양현종이 외야로 캐치볼을 하러 가기 위해 글러브를 찾았다.

그러나 턱아웃 어디에도 양현종의 글러브는 없었다. 후배들의 장난을 의심한 양현종은 유력 용의자인 이민우와 임기영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글러브의 행방을 물었다.

자신들의 장난이 아니라며 묵묵히 캐치볼을 하는 후배들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린 양현종. 잠시 뒤 라커룸으로 달려간 불펜 포수 이동진이 실종됐던 글러브를 들고 나타나면서 양현종은 훈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캐치볼이 끝난 뒤 양현종은 "분명 누구가를 시켜서 몰래 라커룸에 글러브를 갖다놓은 것"이라며 범인 찾기에 나섰다. '유력 용의자' 이민우와 임기영이 강력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두 후배는 오히려 "현종이 형이 깜빡하고 글러브를 안 챙기고 나와서 자작극을 하는 것"이라며 항변하기도 했다.

양현종은 '글러브 실종 소동'에도 불лен 피칭까지 무사히 소화했지만 "너희들이 먼저 장난을 시작했다. 유니폼을 모두 버리겠다"고 두 후배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그리고 며칠 뒤 양현종의 복수가 이뤄졌다. 다른 선수들보다 일찍 경기장에 출근한 양현종은 라커룸에 있던 두 후배의 유니폼을 모두 꺼내 들고 나와 나무와 펜스에 '유니폼 전시회'를 펼친 것이다.

출근길에 진풍경을 목격한 선수들은 큰 웃음이 터졌고, 이민우와 임기영은 유니폼 정리로 하루를 시작했다.

투수 최고참이 이끄는 유쾌한 마운드. 시즌 준비도 잘 이뤄지고 있다.

경기장을 유니폼 전시장으로 만들었던 양현종은 4일 연습경기를 통해 첫 실전 피칭을 끝냈다.

이날 독립리그 연합팀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선

양현종은 2이닝을 소화해 22개의 공을 던졌다. 양현종은 1회 첫 타자에게 좌전 안타를 내줬지만 병살타로 바로 투아웃을 잡은 뒤 유격수 플라이로 1회를 정리했다.

2회에는 좌익수 실책으로 시작한 뒤 좌전 2루타로 1실점 했지만 이후 세 타자를 투수 땅볼, 2루수 땅볼, 유격수 직선타로 처리하면서 비자책점을 만들었다.

미국 스카우트들이 지켜본 가운데 양현종은 순조롭게 시즌 준비를 이어갔다.

이민우와 임기영도 '선발 후보'로 캠프를 잘 치르고 있다.

두 사람은 새 마음으로 출발하기 위해 올 시즌 백넘버도 바꿨다. 각각 경성대와 경북고 에이스 시절에 사용했던 11번과 17번을 새로 달았다.

"정말로 글러브를 숨기지 않았다"며 웃은 이민우는 "최근 밸런스가 좋다. 이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선발 경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임기영은 "2년 동안 딱히 보여준 게 없다. 올해는 캠프 시작과 함께 경쟁이어서 겨울에 피칭도 하고 팬츠를 갈고 있다"며 "재미있게 하고 있다. 특히 현종이 형한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고 있다. 많이 물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4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서 테리 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플로리다 독립리그 연합팀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 캠프 첫 실전을 소화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45세 우즈, 골프 명예의 전당 후보에

내년 현역 후보 10명 발표...최소 연령 50→45세 적용 첫 수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5·미국)가 2021년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 후보에 선정됐다.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은 4일 2021년 명예의 전당에 현역될 후보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2021년에 명예의 전당에 현역될 후보로는 우즈 외에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 조니 패럴, 톰 바이스코프, 도티 페퍼, 수지 맥스웰, 베벌리 헨스, 샌드라 파머, 팀 핀첩, 매리언 홀리스(이상 미국)까지 10명이다.

골프 명예의 전당은 원래 50세가 돼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 1월 '2021년부터 최소 연령을 45세로 낮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우즈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고, 예상대로 우즈가 45세 적용 첫해인 2021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명예의 전당 가입이 확정되면 20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투표에서 75%인 15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남자 선수 출신이 명예의 전당 후보가 되려면 주요 투어에서 15승 이상을 하거나 4대 메이저 대회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2승 이상을 해야 한다.

우즈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만 82승을 거두고 메이저 15승을 달성해 기본 조건을 충족했다. 우즈 이외에 주요 후보를 보면 헤링턴은 유러피언투어 15승, 메이저 3승을 거둔 선수고 페



퍼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7승, 메이저 2승, 1992년 올해의 선수와 최저타수상을 받은 선수 출신이다.

핀첩은 1994년부터 2016년까지 PGA 투어 커미셔너로 일하며 투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1년 골프 명예의 전당 최종 현역 대상자와 행사 일시, 장소 등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리버풀 '트레블'도 물거품

FA컵 16강 첼시에 0-2 패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가 '최강' 리버풀을 제압하고 잉글랜드축구협회컵(FA컵) 8강에 올랐다.

첼시는 4일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2019-2020시즌 FA컵 16강전에서 윌리엄의 선제 결승골을 앞세워 리버풀을 2-0으로 물리쳤다.

이로써 첼시는 최근 5시즌 동안 4차례 FA컵 8강에 올라 단판 토너먼트로 펼쳐지는 이 대회에 강한 모습을 이어갔다.

첼시는 가장 최근 8강에 오른 2017-2018시즌 대회에서는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한 바 있다.

반면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올라있는 리버풀은 FA컵에서 탈락, 한 시즌 3개 대회에서 우승을 달성하는 '트레블' 도전이 무산됐다.

리버풀은 또 직전 왓퍼드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0-3으로 완패해 '무패 우승'이 불발된 데 이어 2연패 부진에 빠져 분위기가 완전히 꺾였다.

첼시는 전반 13분 윌리엄의 중거리 골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리버풀 수비진이 후방에서 공을 돌리다 실수로 공을 내주자 윌리엄이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곧바로 슈팅을 날렸다.

후반 19분에는 로스 바클리가 역습 상황에서 50여m를 질주하며 수비수 2명을 따돌린 뒤 오른쪽 슈팅으로 2-0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연합뉴스

독일판 '칼레의 기적'

'4부 리그' 자르브뤼켄, '1부 리그' 뒤셀도르프 꺾고 포탈컵 4강행

독일축구협회(DFB) 포탈에서 4부리그 팀이 1부 리그 팀을 꺾고 준결승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독일 4부리그에 해당하는 레기오날리가 쥐트베스트 소속의 자르브뤼켄은 4일(한국시간) 독일 자르브뤼켄의 헤르만-노이베르거-슈타디온에서 열린 2019-2020 DFB 포탈 8강전에서 분데스리가(1부) 팀인 뒤셀도르프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7-6으로 승리, 4강에 진출했다.

DFB 포탈은 다른 나라의 'FA컵'에 해당하는 대회로, 이번 시즌엔 1~2부 분데스리가 전체 팀과 3부리그 상위 4개 팀, 각 지역 컵대회 우승팀 등 64개 팀이 출전했다. 최하 6부리그 팀까지 나섰다.

DFB에 따르면 4부리그 팀이 포탈 준결승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DFB 포탈은 이번 시즌이 77회째다.

자르브뤼켄의 포탈 4강행은 '독일판 칼레의 기적'인 셈이다.

프랑스 4부리그 팀이었던 칼레는 1999-2000 시즌 프랑스 FA컵에서 상위리그 팀을 꺾고 결승까지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고,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이후 '하위리그 반란'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

과거 분데스리가에서도 뒤졌던 자르브뤼켄은 2013-2014시즌 3부리그에서 강등돼 6시즌째 4부리그에서 보내고 있다. 이번 시즌엔 레기오날리가 쥐트베스트에서 1위를 달리며 3부리그 승격

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포탈에선 1라운드에서 2부리그 팀 안 레겐스부르크를 3-2로 제압한 데 이어 32강인 2라운드에서는 1부리그 팀 FC 쾰른을 꺾어 이번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이어 16강전에서는 카를스루에(2부)를 승부차기에서 따돌리더니 이번에도 승부차기에서 뒤셀도르프를 물리치고 새 역사를 썼다.

이날 자르브뤼켄은 전반 31분 토비아스 예니케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으나 후반 45분 마티아스 예르겐센에게 동점 골을 내주고 연장전으로 끌려갔다.

연장전에서는 골이 더 터지지 않은 채 펼쳐진 승부차기도 두 팀이 10번씩 찬 끝에 승패가 갈릴 정도로 팽팽했다. 양 팀 통틀어 20번째 키커인 예르겐센의 슈팅을 자르브뤼켄 골키퍼 다니엘 바츠가 막아내고서야 준결승 진출 팀이 결정됐다.

자르브뤼켄의 준결승 상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8강 진출팀이 모두 분데스리가 팀이었던 터라 4강에서도 1부 팀과 맞서게 된다.

이날 살게를 1-0으로 따돌리고 준결승에 합류한 바이에른 뮌헨과 격돌할 가능성도 있다. 바이에른 뮌헨은 DFB 포탈에서 19차례 정상에 오른 '최다 우승팀'이자 디펜딩 챔피언이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